

# 유은혜號 ‘대학구조 개혁’의 핵심은 당근과 채찍

자율지원금

정원감축

## 교육부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혁신지원사업에 8596억 지원  
5개 목적사업, 하나로 통합  
4년제 12곳, 전문대 10곳  
3년간 신입학정원 10% 감축

올해부터 대학이 자율로 쓸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대학 22곳은 2020학년도 대입부터 3년간 신입학 정원의 10%를 의무적으로 줄이는 등 대학 구조개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전문대학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을 8일 공개했다. 시안은 지난해 3월 발표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에 따른 것으로, 대학들이 자율 혁신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시안을 보면, 기존에 정부 주도로 특정 사업에 쓰도록 지원돼 온 ▲ACE+(대학자율역량강화) ▲CK(대학특성화) ▲PRIME(산업연계교육혁신 선도대학) ▲CORE(대학인문역량강화) ▲WE-UP(여성공학인재양성) 등 5개 재정지원 사업이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 일반재정지원으로 대학에 지원된다. 대학들은 그동안 각 사업 목적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워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게



지난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대학혁신지원을 비롯해 기존 국립대학육성사업, 산학협력사업, 연구지원사업 등 4개 사업으로 간소화된다.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최상위 평가를 받은 자율개선대학(4년제 131개, 전문대 87개)은 자율협약형 사업을 진행, 재정 자율성이 확대되지만, 차상위 등급인 역량강화대학 일부(4년제 12개, 전문대 10개)는 역량강화형 지원 대상으로, 2020학년도 대입부터 3년간 신입학정원의 10%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으로, 올해 지원금은 별도 평가없

이 대학 여건에 따라 배분되지만, 내년부터는 성과 평가가 반영돼 차등 지원된다.

올해 사업비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전년 5개 사업비와 비교해 약 28%(1241억원) 증액된 5688억 원, 전문대학은 16%(400억원) 증가한 2908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는 8596억원으로 전년보다 1641억원 증가했다.

자율협약형 지원 대학은 교육, 연구, 산학협력 분야 등에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혁신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추진할 수 있다. 올해 지원금은 사전 평가 없이 학부 재학생 수와 학교 수를 고려해 5개 권역별 배분 한도 내에서 100% 재원배분산식(안)에 따라 정해

진다. 대학별 지원금액 산정에는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 재학생 수, 재학생총원율·전임교원확보율·교육비환원율 등 교육여건 등이 반영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자문하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학은 컨설팅단의 수정·보완 권고에 따라 교육부와 대학혁신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내년 이후 지원금은 성과평가를 대폭 강화해 자율협약형 총 사업비 중 20% 내외를 연차·종합평가와 연계해 대학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거나 지역 감소 대학 육성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역 감소대학은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권역별 우수 대학 중 학부 재학생 수 1만명 미만 대학이 대상이다.

역량강화형 지원 대학은 대학의 구조 조정 촉진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역량강화대학 30개교 중 12개교를 선정해 올해 296억 원이 지원된다. 정원감축과 특성화 의지가 있는 대학에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교육부는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평가해 5개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지원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 요소는 대학의 ▲기본여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체계성 ▲교육과정 혁신 ▲교수·학습 지원체제 혁신 ▲재

정집행계획 ▲성과관리 ▲정원감축이행 계획의 합리성 등으로 교육부는 이런 요소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대학별 지원금은 자율협약형과 동일하게 100% 재원배분산식(안)에 따라 정해진다.

역량강화형 지원 대학의 경우 연차별 사업 종료 후 평가를 통해 하위 대학의 사업비 일부(10% 내외)는 감액돼 상위 대학에 추가로 지급된다.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을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 확대·개편되는 것으로, 자율협약형(자율개선대학대상), 역량강화형(역량강화대학)과 함께, 후진혁신도형(자율개선대학 대상) 3가지 유형으로 구분돼 지원된다. 후진혁신도형은 지역주민·직자 대상 맞춤형 후학습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전문대 역량강화형 지원 대학은 역량강화대학 36개교 중 10개교가 선정된다. 이들 대학의 정원감축과 구조개혁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고등교육의 쟁점이 되는 시간강사 고용 안정성 지표가 이번 사업의 성과지표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하고 할 경우 차후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8일~9일 개최하고, 이달 중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대학가 소식

### 성균관대

#### 신동렬 총장 취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이사장 서정돈)은 8일 오전 11시 600주년기념관 새천년홀에서 신동렬 제21대 성균관대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신 총장은 취임식에 앞서 문묘(공자의 사당)에서 학교의 중요행사가 있을 때 그 내용을 알리며 치르는 의식인 고유례(告由禮)를 치렀다.

신 신임 총장은 1956년 서울 출생으로, 80년 성균관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82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기및전자공학과 석사학위와 92년 조지아공과대학교



신동렬 성균관대 신임 총장이 8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 교수로 임용돼 정보통신대학장(5연임), 성균융합원장 등을 역임하며 교육과 행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전공특강에는 전자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수학과, 영어산업학과 등 16개 학과가 참여했고, 전공체험 참여 프로그램은 로봇학부, 건축학과, 화학과 등 6개 학과에서 진행됐다. 고교생들은 소그룹으로 나뉘어 광운대 재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공 실습에도 직접 참여했다.

학생들은 특히 레고 마인드스톰 EV3 키트를 활용해 직접 명령어를 코딩해보는 로봇학부 전공 체험에서 큰 호응을 보였다.

MBA(이상 호텔관광대학원) ▲미디어문예창작전공 ▲문화예술경영전공 ▲미래시민리더십·거버넌스전공(이상문화 창조대학원) 등 5개 전공에서는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글로벌한국학전공은 편입생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입학에 관한 상세 내용은 대학원 홈페이지나 전화(02-3299-880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 올해 채용시장 키워드는?

# #AI #금융권 필기시험 #중견기업 수시채용

전통적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변화  
AI가 판단할 수 있는 특성 이해해야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면서 근로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채용시장에서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변하고, 기업의 빠른 혁신이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직무역량을 더욱 강조하는 추세였다. 올해 역시 직무역량 인재 채용이 더 부각되지만, 적지 않은 변화 조짐도 감지된다.

우선 중견기업의 올해 고용의 문이 활짝 열린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19일 진행된 ‘제4회 중견기업의 날’ 행사에서 올해 31조2000억 원을 투자하고 19만7000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중견기업 채용은 공채와 수시채용이 병행되고 특히 수시채용이 증가 추세다. 따라서 미리 지원동기와 지원 직무에 따른 역량을 충분히 쌓아 놓는 것도 전략이다.

대기업 지원자라면 ‘AI(인공지능) 채용



청년참여연대 소속 회원들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영동열 의원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스템’ 대비는 필수다. 작년 하반기 채용 시즌에 AI를 동비한 기업이 늘었다. 서류전형에서 인공지능 활용 기업은 올해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그룹은 이미 2018년 상반기 AI 서류 검증을 진행했고 하반기에는 CJ그룹, 기아자동차가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구직자들은 자기소개서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명, 지원동기, 직무경험, 직무역량관련 스펙은 모두 AI 시스템이 언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원하는 회사의 특성

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권에서는 채용 절차에 필기시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하반기 금융권 채용과정에서 필기시험이 신규 도입됐거나 강화됐고, 면접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보완해 올해는 더 공정한 채용 절차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 증권, 카드 등의 제2금융권의 경우 필기시험이 의무는 아니지만 선택적으로 채용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한용수 기자

### 광운대

#### 고교생 전공체험 박람회

광운대학교(총장 유지상)는 지난 5일 전국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500명을 캠퍼스로 초청해 전공체험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광운대 학과 및 전공 탐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9학년도 입학 설명회와 자기소개서 특강을 시작으로 전공특강, 전공체험, 재학생 진로멘토링

### 경희사이버대

#### 전기 2차 대학원생 모집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은 내달 8일까지 2019학년도 전기 입학생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2개 대학원 6개 학과(전공)다. ▲호텔의식MBA ▲관광레저항공

## ‘학력무관 채용공고’ 2년새 16%p 증가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공기업 중심으로 학력이나 나이 등 차별 요소를 배제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본격 도입된 가운데, 최근 2년새 ‘학력 무관’ 채용공고가 1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잡코리아가 블라인드 채용 도입 전후인 2016년~2018년까지 각 3분기 동안

잡코리아에 등록된 채용공고 200만여 건의 학력 조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력무관 채용 공고 비율은 신입부터 경력직까지 전 영역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신입 채용공고의 경우 학력무관 공고 비율이 2년새 16%포인트 이상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한용수 기자

